

학력신장 프로그램 본격 가동

도교육청, 맞춤형 학습지원 나서... 학습 플래너 제작·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 핵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단위학교 지원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

원에 나선다. 이는 학습 플래너 제작 및 AI 기반 코스웨어 개발, 학생 1인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 앱(App) 운영, 교사 학습코칭 전문성 신장 지원, 학력향상 도전 학교 운영 등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먼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에게는 학습플래너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담임교사의 학습코칭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플래너에 학습계획을 기록하고(날짜·과목·공부내용 등), 실행 여부를 성찰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관리 역량을 쌓게 된다. 이와 함께 AI 기반 코스웨어 맞춤형 학습 자료도 제공한다. AI 코스웨어란 인공지능 기술을 코스웨어에 접목해 맞춤형 학습을 구현해주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결손 부분을 확인하고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고등학교 현장 보급을 앞두고 있는 학생 학습지원 앱은 학생의 학습과정 전반을 데이터로 기록해 대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단위학교 지원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 본격 실현

도교육청, 유아 1인당 3~4세 월 16만5000원·5세 월 11만5000원 각각 지원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목적...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보편 복지 실현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을 본격 실현한다. 이는 충남교육청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 1인당 3~4세는 월 16만5,000원을, 5세는 월 11만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5세 유아는 누리과정비로 5만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립 유아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동의한 후 학부모 부담금 징수 금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이미 구성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도 가동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복음의 씨앗 심어져 소동케 하는 한 해 되기를”

신동아학원, 2024년 시무 예배 박진배 전주대 총장 “개교 60주년 넘어 100년 향해 비상하는 대학 될 것”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3일 오전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2024년 신동아학원 시무 예배'를 갖고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시무 예배에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법인 산하기관인 전주대, 전주비전대, 영성고, 전주사대부고 등 4개 학교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축도,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은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을 잊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소동이 계속 일어나는 길로 가야 한다”며 “산하 4개 학교(전주대, 전주비전대, 영성고, 전주사대부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 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소동케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아 박진배 총장은 “6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비상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겠다”며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글로벌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의 설교 및

전통회화·현대미술로 사물의 존재 가치 재해석

전주교대 교수 2인 전시회 16일까지

미술교육과 장지성·장동호 교수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오는 16일까지 황학당 JEAS(전주교육대학교아트스페이스)에서 미술교육과 장지성 교수와 장동호 교수의 2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지성·장동호 교수는 '전통회화'와 '현대미술'이라는 매체로 각자 사물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예술성을 찾고, 그것을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전시회가 교



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작품의 재해석 해 창의적 사고와 표현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 19일까지 '전주한입' 공모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와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공모전을 개최 키로해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주음식 관광상품(디지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디지털 공모전 '전주한입'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한입' 공모전은 디지털 상품을 개발해 상품화가 가능한 전주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 공지사항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tcc_hansik@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063-281-15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